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기간	2019/1/15~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알고마 대학은 우리 대학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외딴위치에 충분한 시설. 추가로 따로 체육관은 가봤는데 일반적인 헬스장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시간표상 이용하기 쉽지 않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강사 분들이 열정적이었던 것 이었다. 그 점이 수업을 듣는데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역사와 결부시켜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만 수업자체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수박 겉핥기식 수업이었다. 환경문제, 캐나다 역사, 문법, 그 외 강의정도로 주제가 있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수업에서 어떠한 점을 얻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물론 캐나다 역사수업이 답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얻고 가는 점이 있었지만 따르는 것은 참여만 요구했지 강사가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보긴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3주라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3주마저도 다른 야외활동 때문에 진행이 힘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좋은 강의이긴 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키: 한국에 있는 스키장과 다를 바없다. 다만 좀 더 사람이 적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점정도 스키복이 있어야한다. , 개썰매: 개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 하키: 캐나다사람들의 하키사랑을 엿볼 수 있다, 알파카농장, k 런치-lunar new year: 우리가 직접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문화교류하는 거였는데 즐거운 경험이었다. 추가비용은 필요하지 않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평균이 -27였다. 많이 내복이랑 양말두개정도는 필수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충분히 안전하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분들이 대체로 경험을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셔서 일반가정집 간접경험과 영어실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일 때문에 바쁘시고 힘들어하셔서 가끔 빵만 먹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음식 하면 잘하시는 편이라서 하면 맛있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버сий용권을 별도로 주니까 걱정 안해도 된 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대략35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기억이 잘안나요		
합계		대략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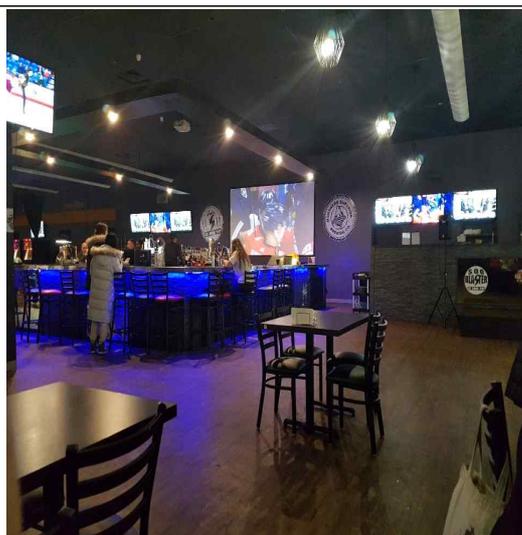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한번이라도 여행 가봤으면 알만한 필요한 돈, 여권, 세면도구, 핸드폰 /추우니까 충분한 옷/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필기구/ 홈스테이한테 줄 선물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낀 여행이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어학실력의 뛰어난 향상은 도모하지는 못했지만 캐나다란 나라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어학연수였다.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의 스포츠, 문화, 의식주, 역사 등 여러 요소가 나의 흥미를 자극했고 많이 배웠다. 홈스테이랑도 즐거운 시간보내면서 내외적으로 성장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환경에 접해보며 나 자신이 좀더 성숙해진 시간을 보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항상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 어학연수 내내 시간들은 모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채우는 시간들로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캐나다 풍경들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다. 캐나다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 풍경들 동물들은 매 순간 감사하게 하는 어학연수 생활을 하게 도와주었다. 내 능력에 부족한 기회를 얻게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소중했다. 후배들한테 여건이 된다면 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추천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술집



가장 맛있었던 음식



신발 만들기



라마



하키



쉬는시간에 쓰는 방